

축구장 잔디 논란... 정부가 나섰다

문체부, 국내 축구장 잔디 전수조사·개선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최근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끼쳐 논란이 된 축구장의 잔디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함께 K리그 경기가 열리는 축구장 총 27곳의 잔디 상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문체부와 프로축구연맹은 프로축구연맹 내에 잔디관리 전담 부서를 특별히 신설해 일본 등 선진사례 조사에 착수했다.

4월부터 K리그 경기장을 조사해 상반기 중 잔디 상태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경기장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장의 특성과 기후 조건 등을 고려해 △노후화된 잔디 교체와 인조 잔디 품질 개선 △열선 및 배수시설 관리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장기적인 잔디 유지·관리 지침 마련과 현장 점검 강화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올해부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축구장 잔디 교체 등 경기장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추후 전수조사 대상 경기장을 확대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경기장의 잔

디 상태는 선수들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부상 방지, 팬들의 관람 만족도 등 경기의 전체적인 품질과도 직결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장의 잔디 상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연맹과 구단, 경기장 운영주체 등과의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해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축구장 잔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3월 홈에서 열린 A매치 2연전도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가 악화해 고양종합운동장(오만)과 수원월드컵경기장(요르단)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선수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손흥민은 지난 25일 요르단전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런 말을 또 해서 그렇지만, 홈 경기인 만큼 좋은 컨디션과 환경에서 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게 속상하다"며 "모든 분이 신경 써 줬으면 한다. 더 잘할 수 있는데도 홈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 어디서 이점을 누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잔디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플레이하지 못하는 게 속상하다. 바뀔 거로 생각하지만 바뀌지 않는다"며 "어느 나라든 좁고 답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잔디가 잘 돼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2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강당에서 체육 우수인재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전북의 미래 밝히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재경 전북특별자치도민회, 체육 우수인재에 장학금 수여

재경 전북특별자치도민회(회장 광영길)가 체육 우수인재에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는 학생선수를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8개 학교 9개 종목에 500만 원씩 전달했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 학교는 △전주고 야구부, 농구부 △전주공고 축구부 △전주근영고 배구부 △전주성심여고 배드민턴부 △군산상일고 야구부 △이리고 축구부 △남성고 배구부 △전북제일고 핸드볼부 등이다.

이날 2층 강당에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감, 광영길 회장을 비롯해 8개 학교 교장, 감독교사 등이 참석했다.

광영길 회장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지원하는 것은 재경 도민회의 책무”라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밝히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재경 도민회에 감사드린다”며 “학생 선수들이 올림픽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준 재경도민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전북교육청도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는 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2025년 무주 차범근 축구교실 ‘막 올랐다’

무주등나무운동장에서

지역 초등생 84명 참여

11월 6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

차범근 이사장, 명예군민증 받아

“2025년 무주군 차범근 축구교실”이 27일 시작됐다.

무주 등나무운동장에서 개최된 개회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오광석 의장, 무주군축구협회 성준경 회장과 ‘팀차범’ 차범근 이사장을 비롯한 ‘풋웍크리에이션’ 차세찌 대표와 참여 학생(84명) 등 200여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덕담을 나누고 기념 촬영 등의 시간을 가졌으며 차범근 이사장은 무주군으로부터 명예군민증을 받았다.

명예군민증은 군정 발전에 공로가 크거나 지역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외국인이나 해외교포, 또는 다른 지역 출신 인사들에게 주는 것으로, 차범근 이사장은 축구교실(2023년~)을 통해 무주지역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무주군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해 이날 명예무주군민이 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선수와 지도자, 해설가, 행정가 등 다방면에서 뜨겁게 활약하고 있는 차범근 감독의 열정이 우리 지역 아이들의 자신감과 미래 꿈을 키우고 있다”라며 “축구교실이 해마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범근 이사장은 “무주군의 명예군민이 돼 무척 기쁘다”라며 “무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무주지역 체육 발



27일 무주 등나무운동장에서 '2025년 무주군 차범근 축구교실'이 열린 가운데, 황인홍 무주군수, 차범근 팀차범 이사장, 차세찌 풋웍크리에이션 대표, 축구교실 참여 학생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애정을 쏟겠다”라고 전했다.

‘팀차범’(이사장 차범근)이 주최하고 ‘풋웍크리에이션’(대표 차세찌)이 주관하는 2025년도 무주군 차범근 축구교실은 11월 6일(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무주등나무운동장)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무주군 지역 내 초등학생(1~6학년) 84명이 차범근 이사장을 비롯한 전문 지도

자들의 코칭을 받으며 대회 리그전 등을 경험하게 된다.

2025년 차범근 축구교실 후원사는 무주군(군수 황인홍)을 비롯한 넥슨, AIA, 아디다스, 코카콜라, 대웅제약, 투타정형외과 등으로 무주군은 프로그램 홍보와 장소, 의료인력 등을 지원하게 된다.

무주중앙초 4학년 강필규 학생은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같이 뛰고 경기

하는 게 너무 신난다”라며 “올해도 다시 하게 돼 너무 좋고 열심히 해서 차범근 감독님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국춘계남자역도 ‘3관왕’

순창군청 전병현 선수

-102kg급 인상 150kg

합계 331kg로 신기록



순창군청 역도팀 전병현 선수가 제79회 전국 춘계 남자 역도대회에서 102kg급 부문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순창군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번 대회는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충남 서천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전병현 선수는 26일에 열린 대학부 및 일반부 102kg급 경기에 출전했다. 102kg급 경기는 모두 실업팀 선수들만 참가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으며, 그 중 전병현 선수는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전병현 선수는 인상 150kg, 용상 181kg, 합계 331kg을 들어 올리며

인상, 용상, 합계 부문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인상과 합계 부문에서는 대회 신기록으로, 그의 뛰어난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였다. 이는 지속적인 훈련과 순창군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만 들어낸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병현 선수의 이번 성과는 순창군 역도의 저력을 보여준 쾌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